

농두밭

2021 | 봄 | 43호

녹두칼럼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특집

김양식

전국에서 불타오른 동학농민혁명

지역대담

조복래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유족인터뷰

임영섭

참여자 임경윤의 증손자

유적탐방

문병학

경북 예천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사(東學史)



동학사(東學史) 서적 | 1940년, 영창서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이 자료는 1940년 영창서관(永昌書館)에서 간행한 것으로 저자는 오지영(吳知泳, 1868~1950)이다. 저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삼례, 익산, 충청도 보은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총 242쪽으로 구성된 '동학사'에는 1860년 동학의 창건부터 1920년대 저자가 주도한 천도교 혁신운동의 경과까지 약 60여 년 간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저자가 동학농민군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폐정개혁안 12조 목이 나타나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크다.

목차

- 04 **녹두칼럼**
박용규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06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6차 이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3차 자문위원회
[기획전시] 동학농민혁명의 얼굴, 시대를 담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구 천도교 임실교당」
- 16 **기획특집**
김양식 / 전국에서 불타오른 동학농민혁명
- 21 **유족인터뷰**
임영섭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임경윤의 증손자
- 32 **지역대담**
조복래 /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42 **유적탐방**
문병학 / 경북 예천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 52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 53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54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안내**



표지 설명 : 한천제방과 서장자들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일대에 위치한 한천제방과 서장자들은 1894년 8월 28일 밤 예천지역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의 민보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전봉준, 최시형의 독립유공 서훈해야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국선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심사위원들은 이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을미년(1895년)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인사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갑오년(1894년)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제거하기 위해 거병한 인사는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미의병 참여자는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10명을 포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도 잘한 일이었다. 1962년 안승우(1865~1896)에게 독립장을, 1963년에 이춘영(1868~1896)·서상렬(1856~1896)·홍사구(1888~1896)에게 각각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018년에 김진립(1838~1900, 63세)·윤병의(1822~1899, 78세)·이강하(1873~1940, 68세)에게 각각 대통령표창을, 2020년에 이면수(1833~1898, 66세)·류인목(1839~1900, 62세)에게 각각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상의 총 110명은 을미의병 참여만으로 서훈을 받은 분들이다. 을미의병 참여와 이후의 의병 참여로 서훈을 받은 분은 56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1962년에 이병도와 신석호(둘 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됨)가 정한 독립유공 내규 즉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내규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 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 지도자가 최시형이었다.

전봉준·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였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을미의병(1895)·을사의병(1905)·병오의병(1906)·정미의병(1907)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67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8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한 항일 구국 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항일 구국투쟁'이라는 기술은 198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2021년 현재까지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수많은 학술 논문과 저서에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항일투쟁 즉 독립운동이라고 논증하였다.

현재 갑오의병(1894년 8월)과 을미의병(1895년)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대상에 들어가 있다. 너무도 지당한 결정이다. 갑오의병의 의병장인 서상철에 대해 서훈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의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은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있다. 위의 세 운동은 똑같이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만 서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 받고 있다. 이런 불공평과 모순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에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독립유공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장관과 차관, 그리고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장은 '독립유공 서훈 대상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한 인사들에 대해 서훈을 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를 바란다.

박용규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글학회 연구위원과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2021),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사』(2012), 『우리말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윤재』(2013), 『조선어학회 33인』(2014) 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6차 이사회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6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및 유적조사 연구용역,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사업 추진상황 등을 원안 접수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3차 자문위원회



지난 2월 23일 오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3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념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2020년도 결산안을 검토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및 유적조사 연구용역,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사업 추진상황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올해 말 완공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동학농민혁명의 얼굴들, 시대를 담다



2020년 12월 23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얼굴, 시대를 담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가 개막되었다. 2021년 5월 30일까지 전시될 이번 기획전은 1인 영웅 중심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달리 ‘백성’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동학농민혁명,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얼굴을 주제로 다루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운동, 민족주의운동의 뿌리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극심하게 축소·왜곡된 채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 나아가 이웃들까지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여기에 사진촬영이 일반화되지 못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진 한 장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기획전은 곡절 속에서도 어렵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진 참여자의 얼굴과 갑오년의 역사와 씨줄날줄로 얽힌 관련자들의 얼굴을 찾아 전시하였다.

이번 기획전은 모두 다섯 섹션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섹션 ‘동학농민혁명의 얼굴들, 시대를 담다’에서는 1894년 전후 백성들의 얼굴을 전시하였고, 제2섹션 ‘1894년 조선,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에서는 동학 창도자 수운 최제우를 비롯한 동학교단 관계자들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의 얼굴, 여기에서 나아가 혁명 이후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을 전시하였다. 제3섹션 ‘농민군에 충구를 겨누는, 조선 진압군의 얼굴을 보다’에서는 1894년 전후 관직에 있으면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라감사 김학진, 이도재를 비롯하여 충청감사 박제순의 얼굴과 동학농민군 진압의 선봉에 선 초토사(招討使) 홍계훈, 이두황 등의 얼굴과 청나라와 일본 관계자들의 얼굴을 전시하였다. 제5섹션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다’에서는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9세기말
조선의 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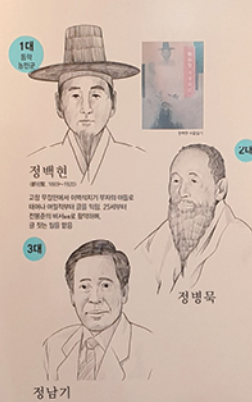


1894년 조선,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학운 일가의 얼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백현 일가의 얼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태영 일가의 얼굴



정태영(丁泰榮, 1859~1922) 일가(一家)

정태영은 1859년 충남 당진군에서 출생했다. 1894년 1월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집강에 임명되어 홍주성 전투에 참여하였고, 전투 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였다고 한다. 한편 장남 정수길은 일제강점기 천도교 예산교구장을 지내고, 무인멸왜기도운동과 선장면 4.4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代

동학농민군 정태영



2代

독립유공자

아들 정수길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990년

3代

손자 정완중



4代

증손 정해곤



정백현(鄭伯賢, 1869~1920) 일가(一家)

정백현은 전봉준의 비서(祕書-비밀스러운 일을 담당하다)로 활약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정백현과 관련한 아들 정병묵의 증언중 일부이다.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로 글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대. 전봉준 선생이 은밀히 일을 벌이면서 우리 아버지를 끌어들이었다는구먼. 전봉준이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해서 아버지께 글 짓는 일을 맡긴 것이라. 그렇게 해서 사발통문의 글도 짓고 모든 격문, 통문의 글을 도맡아 지었다고 알려주시더군요.”

1代

동학농민군 정백현



이 초상화는 정백현의 아들 정병묵이 화가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하여 제작한 것이다.

정백현 서울일기
정백현의 시(詩) 등을
모아 후손이 만든 책

2代

아들 정병묵



3代

손자 정남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과 그 후손의 얼굴

송학운(宋學運, 1846~1939) 일가(一家)

송학운은 충남 금산에서 출생하여 24세의 나이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그의 아들 송철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인물로 자신의 회고록에 아버지의 활동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전략) 선친께서는 24세의 나이로 통정원(通政院)에서 봉직하시다가 동학혁명군에 가담하셨으며, 1906년에 정토종 부회장(淨土宗副會長)을 거쳐 그 이듬해는 금산 청년회장으로 신문화 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하셨다....(중략)... 나의 선친은 요행히 탈출하여 생명을 건지셨으니 내 어머니께서는 막 태어난 핏덩어리와 같은 나를 업고 피난의 물결을 따라 그리고 남편을 찾아다니느라 갖은 고생을 다 하셨다. 관군은 매일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을 찾아와서 선친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서릿발 같은 문초를 했다. 그러니 내 어머니께서는 그런 관군의 서술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후략)

1代

동학농민군 송학운



부인 파평 윤씨



2代

독립유공자

아들 송철



송철 회고록

3代

손자 송전무



4代

증손녀 송기숙





유태홍(柳泰洪, 1867~1950)

유태홍은 1892년 12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자 전라좌도를 대표하여 전봉준과 함께 전주감영에 의송단자를 전달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남원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김개남과 남원지역을 통치하였다. 1919년에는 남원 천도교구장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중 투옥되었다. 1990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병춘(李炳春, 1864~1933)

1892~93년 동학교단에서 주도한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으며, 일제강점기 3·1독립만세운동의 전라북도 지역 총책으로서 거사 계획을 준비하다 붙잡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출옥 후 상해 임시정부로 군자금을 보내다가 적발돼 다시 2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였다.



김영원(金榮遠, 1851~1919)

김영원은 1889년 동학에 입도한 후 전라도 남원과 임실의 동학 포교에 힘쓰던 중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천도교 활동을 이어가다 임실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어 징역을 언도받아 복역 중 사망하였다. 이후 독립운동 공훈이 인정되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김흥섭(金興燮, 1874~1965)

김흥섭은 아버지 김성칠(金聲七)과 함께 어려서부터 동학에 가담해 활동하였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적극 참여하였다. 1차 봉기 때 공음면(孔音面)에서 기포한 뒤, 그해 9월 재봉기 때까지 전봉준의 진중(陣中) 수행원으로 활약하면서 백산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자 지금의 부안군 변산면으로 도피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었는데, 문필에도 뛰어나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



김낙철(金洛喆, 1858~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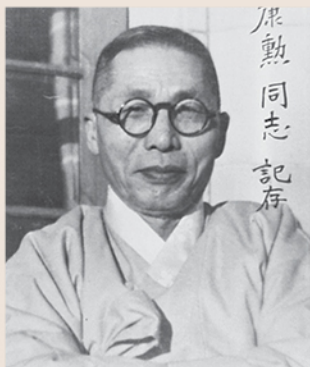
김낙철은 1890년 동학에 입도하여 부안지역의 대접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1893년 동생 김낙봉(金洛鳳)과 같이 서울의 복합상소와 보은 장내집회에도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다음 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부안 송정리에 도소를 설치하고 활동하였고, 9월 재봉기에 참가하였다.



이방언(李邦彦, 1838~1895)

이방언은 전라도 장흥 지방의 토반이자 지주인 이중길의 아들로 태어나 1891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는 홍계훈이 이끌었던 정부군과의 황룡전투에서 장태를 무기로 사용하여 승리한 이후 장흥을 중심으로 집강소 활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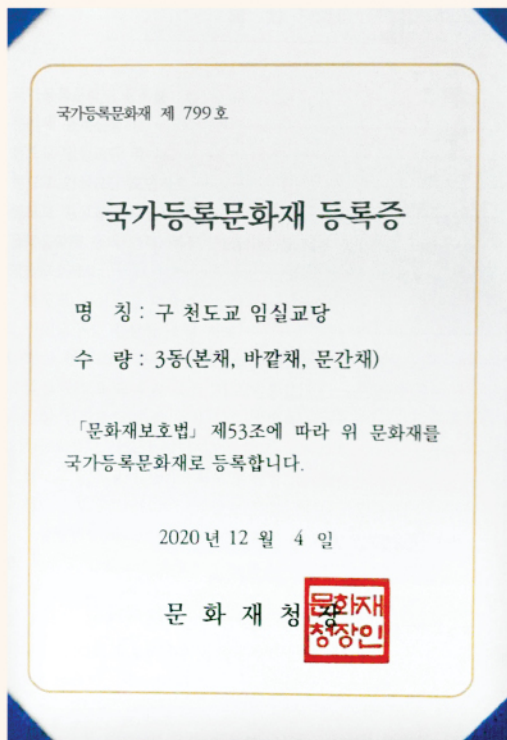
김구(金九, 1876~1949)

백범 김구의 민족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되었다. 1894년 당시 동학의 접주였던 김구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황해도 해주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김구의 민족운동은 임시정부, 광복군 활동 등을 거치며 확대·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백범 김구의 민족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민족민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구 천도교 임실교당(3동, 본채·바깥채·문간채)

자료제공 : 김철배(전라북도 임실군청 학예사)



2020년 12월 4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전북 임실군 임실을 성가리 367(봉황로 105)에 자리한 구 천도교 임실교당의 세 동(본채 106.7㎡, 바깥채 66.8㎡, 문간채 44㎡) 건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이곳(성가리 367)은 1906년 설립된 임실 제1교구와 1908년 임실 제2교구가 천도교 임실교구로 이전(移轉)·통합된 곳이다. 1905년 천도교로 개칭한 동학교단은 1906년 임실 제1교구, 1908년 임실 제2교구를 설립하였고, 김영원, 최승우, 한영태, 박준승 등을 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 제799호로 등록된 구 천도교 임실교당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전국적으로 전개된 3·1운동 때 임실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편, 전북 임실지역은 동학(東學)이 전래된 이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때부터 농민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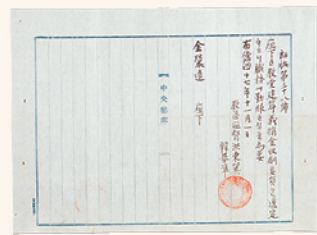
• [구 천도교 임실교당] 관련 주요 사료(史料)



기묘년에 김영원(金榮遠)을 사직대제 제관으로 임명하는 차정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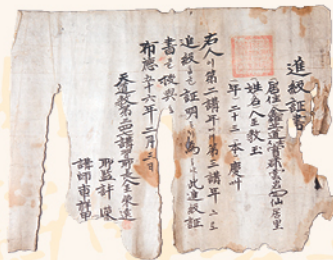
1900년에 김영원(金榮遠)을 상운(上雲)훈장에 임명하는 차정첩



1906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김영원(金榮遠)을 교당건축 의연금수쇄위원으로 차정하는 증장



1908년 상운면 시동 천도교 김영원(金榮遠)이 군수에게 올린 청원소



1915년에 천도교 제347강습소에서 김교옥에게 지급한 진급증서



1915년 천도교 암실군 제347교구 교리 강습소에서 김교옥에게 발급한 졸업증서



1916년에 천도교에서 김영원(金榮遠)에게 발급한 천훈장

전국에서 불타오른 동학농민혁명, 이제는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김양식

(기념재단 이사,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들어가는 말

500년이란 긴긴 세월동안 생명을 유지하던 조선왕조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안으로는 낡고 썩은 조선사회를 개혁하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외세를 물리쳐야만 하였다. 사상과 이념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변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 시대적 위기에 맞서 분출한 역사적 대사건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참여한 층도 기층인 농민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한 민족적 거사였다. 그 때문에 현재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비록 전라도가 가장 많은 56.1%이나, 나머지는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황해도의 경우 통일이 되면 확인 가능한 참여자가 더 증가할 것이다.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 분포 현황

지역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미상	계
명	95	1,100	2,066	214	77	111	2	2	14	3,681
%	2.6	29.9	56.1	5.8	2.1	3.0	0.1	0.1	0.4	100

* 자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거사였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된 유적지 분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은 총 355개인데, 전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유적지 역시 전국적인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2〉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분포 현황

합계	서울	경기	강원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355	2	3	13	1	3	3	27	3	80	157	40	23

*자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지역 단체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해 서울 1개, 전라도 12개, 충청도 12개, 경상도 5개, 강원도 1개 등 총 32개 단체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 역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 동학도들도 참여한 전주성 점령

갑오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충청도에서 내려간 동학도들도 동학농민군부대에 합류하여 전주성에 무혈입성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충청도는 변혁을 꿈꾸는 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동학도들은 이미 1890년대에 들어와 정부를 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기독교는 1882년 미국과의 조약으로, 천주교는 1886년 프랑스와의 조약으로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여전히 탄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학도들에 대한 수탈과 억압은 오히려 날로 커져만 갔다. 이에 분개한 동학도들은 1892년 10월 20일 공주에 집결하여,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일본과 서양 오랑캐의 문란을 바로잡아줄 것을 충청감사에게 요구하였다.

동학도들은 공주집회가 효과가 없자, 전라도 삼례로 내려가 두 차례 집회를 가졌고, 그 다음해 1월에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앞에 었드려 왕에게 직접 호소하였다. 3월에는 금강의 물줄기가 닿는 충북 보은에서 전국의 동학도 2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동학의 자유와 수탈 금지를 요구하였다. 보은에 모인 동학도들은 20여 일 동안이나 농성을 하면서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제 진압에 밀려 자진 해산하였다. 1892-1893년 충청도에서 거세게 분출한 동학운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에 들어갔으나 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농민들은 동학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충청도 남부 금산에서 대대적인 동학도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동학도 수천 명은 3월 8일 금산 세원역에 모여 10개조의 폐정개혁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여, 금산군수의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그 무렵 전라도에서는 모종의 혁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1894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항쟁을 이끈 전봉준은 탄압을 피해 무장(지금의 고창군)으로 피신하여 손화중을 비롯한 동학도들과 혁명을 모의하였다. 곳곳에 통문을 보내 세력을 규합하는 동시에 함께 할 동지를 모아갔다. 드디어 3월 20일 고창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선언한 뒤 4월 27일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3월 8일 금산에서의 동학도 봉기 역시 전라도 전봉준세력과 기맥이 통한 듯하다. 이들은 4월 1일 1천여 명이 진산에 다시 집결하였으나 공격을 받아 114명의 사망자를 낸 뒤 불안으로 내려가 전라도 동학농민군에 합세하였다. 금산 외에 회덕, 진잠, 목천 등지에서도 동학도들이 봉기하여 굶주린 농민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주고 일부는 전라도로 내려갔다. 동학도들이 갑오년 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전라도에서만 봉기한 것이 아니라 금산과 회덕 등 충청지역 동학도들도 봉기하였고, 일부는 전라도로 내려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에 합류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특이한 점은 홍계훈의 전주성 탈환작전에 충청병영 소속 군대도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충청병영군 1백 명은 탄약 20궤를 가지고 5월 1일 청주를 출발하여 전주성 탈환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빠져나온 뒤에도 전주에 남아 있다가 5월 17일 홍계훈이 서울로 돌아간 뒤 다시 청주로 귀환하였다. 이처럼 1차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은 이미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전라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1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 역시 전국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한 뒤 접근해야만 올바른 실체를 알 수 있다.

갑오년 여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전주성을 함락시킨 동학농민군은 5월 8일 정부와 화약을 맺고 철수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정부 측과 협의,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나갔다. 그 결과 전라도 정세는 다소 안정되어갔다. 이것이 기존에 갑오년 여름을 바라보는 고정된 관점이었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청일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전쟁터로 변한 것이다. 청국군은 전라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5월 3일 아산 백석포에 상륙하여 주둔하였다. 조선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 역시 6월 21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6월 26일에는 천안 성환에서 일본군과 청국군 사이에 첫 전투가 벌어졌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청일전쟁은 민족적 위기로 이어져, 시국을 관망하던 동학도들은 5~6월의 침묵을 깨고 6월 말부터 다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갑오년 여름 공주를 비롯한 충청도 일대는 사실상 행정과 치안질서가 마비된 상태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도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정부는 동학도로 하여금 집강소를 설치해 치안질서를 바로잡도록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과 정부를 대표하는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화약이 맺어져 집강소가 7월 6일부터 전면적으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충청도에서도 동학교단의 협조를 받아 동학지도자들을 집강으로 임명하여 도내의 치안질서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전라도와 달리 충청도 집강들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청일전쟁으로 나라의 위기를 눈앞에서 목격한 동학농민군들은 앞 다투어 다시 동학에 들어가고 집회를 여는 등 시국을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경상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로 확산되는 추세였다.

전국에서 일어난 항일의병전쟁

갑오년 여름 전국 어느 곳이나 동학의 세상이 되었으나 나라 정세는 점점 위기가 고조되었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조선을 개혁한다는 구실로 내정을 간섭하였고 청일전쟁에서 연속 승리하면서 그 여세를 몰아 동학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9월에 들어와 민족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전국의 동학농민군은 한 뜻으로 봉기하였다. 항일의병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집강소체제를 깨고 다시 봉기하였고,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 역시 9월 18일부터 무장봉기하여 뜻을 같이 하였다. 9월말 정부에서는 “호남과 호서의 비류가 근래에 다시 영남과 관동과 경기와 황해도 등지에서 만연하였다”고 우려할 정도였으니, 10월에 이르면 사실상 일본세력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국적인 전선이 형성되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한 마디로 항일의병전쟁이었다. 동학농민군 스스로 자신들을 의병이라 칭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의 주적은 일본군이었다. 특히 갑오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졌으니, 이 시기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10대 전투는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 10대 전투(2차)



먼저 10월에 있었던 경상도 진주 고승산전투, 강원도 홍천 서석전투, 충청도 천안 세성산전투와 홍주성 전투를 들 수 있다. 이들 전투는 전라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본군 또는 관군과의 전투였는데, 이들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죽었고 확대되던 전선이 충청도와 전라도와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다.

11월에 있었던 전투는 공주 우금치전투와 청주의 청주전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전투를 계기로 승승장구하던 동학농민군 기세는 꺾이고 점점 전라도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11월 26일 태인전투를 끝으로 부대를 해산하였고, 11월 20일경 나주성전투를 끝으로 호남을 지키던 손화중도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 남단으로 내몰린 동학농민군은 12월 14일 장흥 석대들전투를 끝으로 최후의 길을 걸었고, 일본군과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고 북으로 향하던 최시형부대도 12월 17일 보은 북실전투를 끝으로 모진 겨울을 보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의병전쟁이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었고, 그 기억은 참여자를 통해서, 또는 유적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분단의 결과 아직은 그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황해도지역에서의 동학농민군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식이 확장시켜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오는 말

이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해는 전라도와 전봉준 중심으로 접근하는 나머지,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머리로 이해하더라도 공감의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지난 20세기의 굴절된 우리 역사의 결과이다. 일제 식민사관은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반란으로만 국한시키려 하였고, 제도권 교육을 통해 주입시켰다. 이러한 협소한 이해는 해방 이후에도 비판 없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인 대다수는 잘못 된 역사교육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지적인 사건 내지 특정한 중심으로만 이해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었던 1994년을 계기로 관련 자료가 집대성되고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공간도 전라도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전봉준 중심에서 탈피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모두에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갑오년 전후를 관통하는 시간의 흐름과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는 공간 확대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상이 올곧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3.1운동을 거쳐 해방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온 밑으로부터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생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존엄 받는 대동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임정운의 증손자 임영섭

일시 : 2021. 2. 25.(목) 11시
장소 : 경기도 안양시의회 회의실

Q 이번 호 『녹두꽃』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임정운(林京允 1863~1923) 님의 증손자 임영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41년 12월 15일생으로 참여자 임 경자 윤자 님의 증손자 임영섭입니다. 유족으로는 현재 막내 고모님 한 분과 제 형제들이 살아있습니다. 저의 조부이신 임 장자택자 막내딸인 임근예, 그러니까 제 고모님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 형제들도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 인터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1993년 말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창립하기 위해 발족되었던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유족회 활동에 참여하셨지요? 이현도, 김찬영, 이종찬, 정남기, 손주갑, 김성황 이런 분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함께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유족회 활동을 하던 시절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당시의 상황들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 1993년 말로 기억합니다. 한겨레신문에 “동학농민군 후손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되었어요. 제가 그때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광고를 보고 서울시 중구 필

동에 소재한 역사문제연구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난 해 고인이 되신 이이화 선생님을 만나 상담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라도 함평 지역에서 활동하신 제 증조부님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이던 1994년 1월 6일날 제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때라 어떤 사건 의뢰 때문에 서초동에 가서 박원순 변호사님과 이종걸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대담을 하였고, 이후 동학농민혁명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일기를 빼놓지 않고 써왔기 때문에 당시 일자까지 확인이 되는데, 제가 1994년 1월 7일 유족회 창립에 대하여 고 이이화 소장님과 통화하였고, 1994년 1월 8일 오후 3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소재한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신년하례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신년하례식에는 한승헌 변호사님, 박석무 국회의원님, 임원두 조계종교육원장님 등이 참석하셨고, 고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님, 역사학자인 고 우윤 선생님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정남기, 손주갑 유족분 등 30여 명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년하례식 등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당시 역사문제연구소 산하에 '갑오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증언록 제작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제 일기에 따르면 1994년 1월 24일 오후 4시에 동학농민혁명 후손 증언록 제작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저를 비롯하여 김형호, 이상재, 양운두, 이종찬, 최현식, 김영태, 함기영, 길일기 등이 고 이이화 선생님, 우윤 선생님과 만나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손증언록 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해나가기로 결정하고, 김영태(전 벨기에 참사관) 선생님을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제가 총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던 때라서 모임을 하면 식사비용을 거출하거나 했는데 그날은 고 이이화 선생님이 저녁식사비를 계산하셨어요. 이이화 선생님께서 유족회 창립을 위해 참 눈에 띄게 혹은 눈에 띄지 않게 참 많은 공헌을 하셨어요. 참여자 후손을 찾기 위해 사료를 찾는 일은 물론이고 유족들의 모임을 주선하거나 하실 때면 밥값도 많이 내셨지요.



Q 네, 이이화 선생님께서 지난 해 그러니까 2020년 3월 18일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달 17일이 선생님 1주기 기일이네요. 이이화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산파역할을 수행하신 일이 역사가 되었네요. 1994년 초에 참여자 후손 증언록 출판사업이 논의되어 그 결과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다 치루고 난 연말에 『다시 피는 녹두꽃』—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이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역음으로 역사비평사에서 출판되었지요. 선생님께서 쓰신 당시의 일기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네요. 그 당시의 기억나는 일들에 대해 맥락이 좀 맞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그 무렵의 일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94년 1월 27일자 일기에 박원순, 이종걸 변호사님과 상담하였고, 오후 7시에 충무로 전철역 입구 식당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논의와 함께 후손들 모임인 유족회 발기인 2차 모임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9명이 모였는데, 이 모임에서도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님과 연구소 간사님도 참가비 10만원씩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무렵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한겨레신문사에 할인을 요청해서 유족을 찾는 광고를 게재하곤 했는데 이날 2차 발기인 모임에서도 유족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족회 창립을 위한 2차 발기인 모임은 1994년 1월 28일 한겨레신문 18면에 “동학농민군 후손 발기인”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경향신문에는 발기인 모임이 열리던 날인 27일자에 “동학농민 전 후손~~~ 발기인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전국에서 참여자 유족분들이 한 명 두 명 합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족 찾기에 힘을 기울이던 발기인 모임 구성원들은 1994년 2월 14일 오후 6시 30분에 퇴계로 충무로역 일진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2월 17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발기인대회를 갖기로 하고, 창립대회는 3월 3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Q 네, 제 기억으로 그 무렵 그러니까 1994년 2월 17일 유족회 발기인대회 즈음하여 이이화 선생님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빈소인 강남성모병원에 조문을 갔다가 그곳에서 선생님을 비롯하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윤 선생님 등등 여러 선생님들이 유족회 창립대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A 그랬지요. 발기인대회를 하던 무렵에 이이화 선생님 장모님이 별세하셨지요. 그 무렵의 일기를 보니까 1994년 2월 21일 저녁에 일진식당에서 유족회 모임을 갖고 1994년 3월 3일에 동아일보 사옥 17층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총회를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 부산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창립하게 되었지요.

Q 그 무렵 전주에서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에서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염무웅)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신청을 하여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994년 2월 고부봉기 역사맞이굿, 4월 100주년 기념대회, 5월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11월 우금티 추모예술제 등

성공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어요. 100주년 기념사업의 첫 번째 행사로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읍시 일원에서 ‘고부봉기 역사맞이굿’ 펼쳤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함기영 선생님 봉고차로 여러분이 내려오셔서 행사에 참여하셨지요?

A 맞아요. 1994년 2월 21일 우리 유족회 발기모임 때 2월 26일 정읍으로 내려가서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저를 비롯하여 최관도, 정남기, 김영신, 김재훈 등등 9명이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정읍 황토현과 전봉준장군 고택, 이평면 말목장터 일대에서 펼쳐진 이 행사의 실무자로 동분서주하던 문부장님도 생각합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네요.



Q 네, 선생님 저도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100주년 때 전국적으로 11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어 그 단체의 임원진과 회원을 비롯하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출연진으로 혹은 참여자로 대거 참가하였지요. 내장산 입구의 숙박업소 20여 개를 잡고 26일과 27일 이틀간 말목장터, 만석보유지, 전봉준장군 고택 등에서 행사를 펼쳤었지요.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되돌려서 1994년 3월 3일 열렸던 유족회 창립대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후 100년 동안 반란군의 후손으로 숨죽이며 살았던 유족들이 6개월 가까이 준비모임을 갖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3월 3일 오후 3시에 서울특별시 충정로 동아일보 사옥 17층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개무량하였지요. 사실 100주년이던 1994년 때까지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족들이 그때는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본 사람들도 많았지요. 어쨌거나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발기인 12명이 힘을 모아 준비한 총회였지만 파급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립대회 때 창의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부회장을 맡고 있던 제가 한복을 입고 창의문을

낭독했었습니다. 그날 창립대회 때는 유족회원 62명과 내빈 4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김도현 문화체육부차관을 비롯하여 오익제 천도교령 등이 참석하였지요. 역사학자로는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되셨는데 이이화 선생님과 최현식 선생님이 참석하셨고, 고창문화원장으로 계시던 이기화 선생님도 함께 참석하셨지요. 창립 준비모임 때부터 역사문제연구소의 많은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지요. 특히 이이화 선생님은 창립 전후하여 중앙의 여러 신문사에 기고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이 살아온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렸지요. 유족들을 찾아 인터뷰하여 한겨레신문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를 소개하는 등 아주 열과 성을 다하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사문제연구소 산하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이이화, 신영우, 우윤, 박준성, 배항섭, 김양식 이런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사료를 찾아 인터뷰 내용을 대비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고 쏟아서 1994년 말에는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다시 피는 녹두꽃』이라는 책을 발행되기도 했지요.

Q

그랬지요.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다시 피는 녹두꽃』을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엮어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 선생님 증조부이신 임경윤(林京允 1863~1923) 참여자의 내력도 소개가 되었었지요? 그때는 증조부님 함자가 임 경자 윤자가 아니라 임 중(鍾)자 량(良)자로 소개되었고, 선생님 성함도 임영섭이 아니라 임헌섭(林憲燮)으로 소개가 되었지요?





A 그랬지요. 증조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호적과 실제로 사용하던 이름자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여 등록할 때는 호적에 맞게 증조부님은 임 경자 윤자로, 그리고 그 유족으로 저는 임영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였지요.

Q 네, 선생님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얘기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대회 전후의 얘기를 나누었으니 이제부터는 유족회 창립이후 특별법 제정 때까지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해 동학농민혁명유족회도 창립이 되었지만 백주년 이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졌어요. 그 때 창립된 기념사업단체들에 대해서는 문부장님이 잘 알고계시잖아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과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단체협의회 실무를 겸해서 보았지요?

Q 네, 그 당시 저는 전주에 소재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념사업단체 중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전국에 13개 단체나 되는데 당시에는

문화체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사단법인체는 전주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전주의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행정은 물론 사업추진까지 구분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실무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양정순 국장과 제가 함께 일을 보게되었습니다. 당시 기념사업단체로는 우선 1996년 서울에 설립된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에서 1989년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그 이듬해로 기억하는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동학농민혁명100주년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하였고, 1993년으로 들어서면서 진주대일군전적추모사업회(회장 김범수),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이상식), 동학농민전쟁우금터기념사업회(회장 진영일),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조광환),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강효일) 등 9개 단체가 창립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이들 단체가 모여 1993년 12월 13일 결성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주최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지요.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은 그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어쨌거나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어 전국의 기념사업단체는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전공연구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여 힘을 모은 덕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지요. 유족회 창립이후에도 선생님께서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지요?

A 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3월 3일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된 후 저는 유족회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 각 도와 시군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실무위원을 두었는데 제가 경기도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렵 제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고, 손주갑 유족께서 총무를 맡아서 함께 일을 하였어요. 당시에는 사정을 잘 모르는 유족들이 많았고, 참여자라고 증빙할 수 있는 기록들도 거의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참여자 및 유족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얘기나 갖가지 소문으로는 조부 또는 증조부님 등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사실을 기록이나 증빙할 수 있는 여타의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등록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이화 선생님과 역사문제연구소 구성원들께서 임 경자 윤자 증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하였고, 유족으로 손자녀 1명, 증손 5명, 고손자 5명 총 1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Q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증조부님에 대해 집안의 어른들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집안에 전해져 내려온 족보의 기록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증조부님 묘 앞에 세워진 비문에 간략하게 내용(두 줄)을 보고도 참여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두성, 박문팔, 장병규 등 같은 지역의 장공삼, 차경동, 박문팔, 사기소, 강포수 등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께 많이 들었습니다.

Q 증조부님께서는 1894년 봄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성 월평리전투에도 참여하셨고, 갑오년 겨울 공주 우금티전투에도 참여하셨다가 전세가 기울어진 후 피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증조부님 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금티전투 패배 이후 고향으로 못 오시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일부 동료들과 노령산맥 끝자락 바닷가인 영광군 오동리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교전(交戰)이 있었다는 얘기를 2004년 2월에 제가 오동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 노인인신 최갑희(당시 87세)씨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조부님을 아신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증조부님에 대해 들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2004년까지도 그곳 마을 한쪽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동학농민군 무명 묘가 두 기가 있어서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이 벌초를 해주었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뒤쫓는 관군과 일본군 등과 교전하다가 동네 앞 대추나무 밭가의 개울 안개를 이용하여 퇴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해주셔서 조부님께서 피신하는 과정 또한 지난하고 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이후 증조부님과 조부님께서는 어디로 피신하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하여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 영광군 오동리로 숨어들었다가 교전을 한 후 피신하여 충청도 계룡산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몸을 숨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부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룡산 밑에 용동리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년시절을 충청도 계룡산자락 신도안(지금의 계룡시)에서 보냈습니다.

Q 증조부님 원래 고향은 전라도 함평이지요? 증조부님의 고향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후 조부님, 아버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내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증조부님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은 나주 임씨들의 집성촌이었어요. 바닷가가 접해 있었고(현재는 간척지로 변함) 증조부님의 숙부뻘 되는 분 임백규 이분이 당시 그 지역에 출중한 인물이어서 당시 나주향교, 함평향교에서 크게 활동한 요새 말로 실세여서 이분 덕으로 중농 정도의 가세(家勢)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조부님은 학문도 꽤 깊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황이 매관매직 등으로 부패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증조부님은 동갑계원들과 함께 동학에 가담하여 세상을 한 번 바꿔보자 그렇게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논의했던 분들이 이화진 집주, 장경삼, 장고삼 등등 30여 분이었다고 합니다.

Q 선생님, 증조부님은 현재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A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홍림 선산에 모셨습니다. 다른 곳에 모셨다가 몇 년 전에 가족 묘역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함께 모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역사문제연구소 이이화 소장님과 정남기 유족회장, 왕현중 연세대학교수 등등 여러 분들이 증조부님 묘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Q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1일에도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향토현전적(사적 295호)지 일대에 올해 말 완공목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해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이 부족한 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가지고 100년간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온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예산이라도 많아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힘도 나고 일 추진도 다소 수월하고 그러는 법인데 적은 예산으로 사업하느라 애쓰시는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체부나 기재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Q 네, 선생님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아쉬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액수의 국비가 투자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단 운영비와 기타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2019년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 11일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꼭 12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기념일이 제정됨으로써 그해 5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주최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때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어 동학농민혁명을 첫째, 우리나라 최초 근대민주주의운동. 둘째, 우리나라 최초 근대민족주의운동. 셋째, 우리나라 최초 반개혁신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서 감회와 함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은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헌법 개정할 때 전문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3.1운동은 물론이고 해방이후 부패한 권력에 항거해서 일어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면면히 이어진 우리나라 민주주의운동, 민족주의운동의 시원입니다. 마땅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고,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네, 선생님.... 긴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혹여 빠뜨린 얘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A 저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 일본군을 비롯하여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던 19세기말 민족의 사상인 동학이 창도되었고, 이를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바탕으로 1894년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 척왜적양, 제폭구민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정의와 인권을 추구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와 그 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본과 인본을 바탕으로 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운동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10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25년 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천만 다행스런 일인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버림 받아온 동학농민혁명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으니 그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학농민혁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이면서도 전 민족적인 반일의병으로 발전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우뚝한 민족운동의 봉우리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2021. 03. 09.(화) 14시

장 소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Q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봄호 지역대담에는 지난 1993년부터 광주·전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그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힘써온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이상식)를 연원으로 2017년에 출범한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복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회장님 주요한 경력과 함께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A

네,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복래입니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지역대담』 코너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성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장성에서 살면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장성군의회 제1대 제2대 의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제가 군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고향 선배님이자 당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셨던 이상식 교수님을 만나 장성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황룡전적지를 정비하는 뜻깊은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Q

네, 회장님께서 황룡전적지 정비를 위해 애쓰셨고, 장성군이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상식 교수님께 자주 들었습니다. 황룡전적지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가 1993년부터 시작되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요? 여기에 대해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이상식 교수님과 저는 장성 출신으로 고향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저는 장성군 황룡면 출신이고, 이상식 교수님은 삼서면 출신이에요. 사실 이상식 교수님께서 장성군의회 의장실로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몰랐고, 더욱이나 장성 황룡, 그것도 제가 태어나 자란 월평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1994년 1월이었어요. 제가 장성군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이성엽 군의원이 있었어요. 이성엽 의원이 바로 이상식 교수님과 한집안 사람이예요. 어느 날 이 의원이 제 방에 와서 “의장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이신 이상식 교수님을 아시죠? 그 분이 의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존함은 많이 들었노라 대답하고서 이 의원에게 바로 연락해 보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이상식 교수님이 장성군의회 의장실로 오셨어요. 의장실에 오신 이상식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다, 우리 고장 장성 황룡에 갑오년 때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고부군의 조병갑사건 썸으로 왜곡·축소되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장성 사람들조차도 그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를 까마득히 모른다. 그래서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니 그 장소를 정비하여 기념탑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장성군과 군의회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교수님께 “교수님 반란군들의 기념탑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일에 장성군이나

군의회 등 공직기관에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 드렸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반란군의 기념탑을 세우는데 협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들고 온 자료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시간 날 때 꼭 한 번 읽어보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 교수님이 의장실에서 나가시고 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향 선배님이고, 국립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 내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책상에 두고 간 자료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읽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동학농민군이 서울에서 파견한 조선의 최정예부대인 경군(京軍)을 물리친 역사적인 고장이 바로 장성 황룡이더라구요. 더구나 이 황룡 전투가 내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전투였더라구요. 장성 황룡면, 그것도 월평리는 제가 태어나 자란 바로 그 동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자료를 보고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오전에 군수님실로 올라갔어요. 당시 장성군의 수장은 김정환 군수님이었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 마침 간부회의가 끝나서 군수님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전남대학교 이상식 교수님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이 교수님이 놓고 간 자료에 장성 황룡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그곳을 정비하는 게 좋겠다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군수님이 제가 이 교수님 얘기를 듣고 했던 얘기랑 아주 똑같이 “반란군을 기념하는 탑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군수는 민선이 아니라 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교수님처럼 똑같이 그 자료를 군수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시간





이 날 때 이 자료를 꼭 한 번 읽어 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군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한 군수님이 지금 막 의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면서 올라가셨다고.... 좀 있다가 군수님이 의장실인 제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손에 제가 군수님 책상에 올려놓았던 그 자료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군수님이 저를 보고 이상식 교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이 교수님 며칠 전에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고서 군수님까지 다 얘기가 되었으니 황룡월평에 자리한 전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곧바로 장성군으로 찾아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동학농민혁명과 깊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Q

네,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전주에 소재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1993년 10월에 역사기행팀을 꾸려서 이곳을 답사했어요. 그때 지금은 고인이신 이이화 선생님과 우운 선생님, 그리고 신순철 교수님 등이 동행하셨는데, 답사팀이 황룡전적지에 도착하니 전적지 입구에 이상식 교수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이화 선생님과 이상식 선생님이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시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때 전적지가 정비되기 전이라 황룡전적지는 잡풀로 우거져있었고, 땅은 진펄이라 질척거리서 걸음을 땔 때마다 조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랬던 전적지가 지금은 국가 사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정비·단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요?

A

말해 뭐합니까.(웃음) 전적지 정비를 결정하고, 일 추진에 나서니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부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난항에 빠졌어요. 전적지가 사유지인데 땅 주인이 모두 아홉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버려진 땅이나 진배없어서 매입하겠다고 하니 선뜻 응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시일이 조금 지나면서 그곳에 뭔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나자 땅 주인들이 가격을 턱없이 올려달



라거나 아예 팔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아휴..... 하여튼 장성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저나 이상식 교수님이 아주 동분서주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진팔인 황룡전적지를 오르내리느라 이 교수님과 제가 버린 신발만 해도 네댓 켤레는 족히 될 것입니다.(웃음)

한편, 전적지 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장성군은 물론이고 인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기관의 지원과 각계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황룡전적지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어요. 저도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1994년 늦봄이었는데, 광주시청 앞 식당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어요. 이상식 교수님이 추진위원회 명의로 개최한 그 회의에 저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등등 모두 여덟 분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장성 황룡면 월평리에 위치한 황룡전적지를 정비하고 그곳에 기념탑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어요. 그 무렵 이상식 교수님이 현재까지 전적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장성군에서 2억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튿날 제가 군수님께 전적지 정비 등을 위해 2억을 마련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놀라시더라고요. 1994년 당시 2억 원이면

큰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장성군에서 2억 원을 마련했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전적지 땅 주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건설공사 업체에게 그곳을 정비하기 위해 견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뜰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터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상식 교수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요는 장성과 광주 사이에 육군 31사단이 있잖아요? 이상식 교수님이 그 31사단 사단장님과 안면이 있으니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해보겠다는 거예요. 당시 31사단장이 조진희 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향토방위사』라는 책도 쓰셨답니다. 그 책을 발행할 때 전남대학에 감수를 의뢰했는데 마침 이상식 교수님이 감수를 맡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있어서 이상식 교수님이 31사단을 방문하여 황룡전적지 정비의 필요성을 사단장님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어요. 그래서 31사단에서 대민지원 형식으로 군인들과 장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황룡전적지 정비는 대한민국 육군 31사단 소속 군인들과 군장비가 투입되었어요. 문제는, 대한민국 정규군 사단장이 반란군 전적지 정비에 군인과 장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후에 31사단 사단장에서 5군단 부군단장으로 좌천이 되고 말았어요. 다들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다행히 몇 년 뒤인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조진희 소장이 중장으로 승진하여 육군본부 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 때 광주와 우리 장성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곤 했지요. 하여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95년도에 황룡전적지가 지금처럼 틀을 갖추게 되었고, 승전기념탑도 건립하여 제막하였지요. 이상식 교수님 이분 대단한 분이예요. 여기서 멈추지 황룡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결국 이곳을 1998년에 국가사적 제406호로 등재시키셨어요.

Q

네, 이상식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왜곡과 축소의 길을 걸어온 갑오년의 역사가 명실상부하게 복권될 수 있었던 같아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한 기념사업 추진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어요. 회장님 이쯤해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을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에서 파견된 조선의 최정예부대 경군(京軍)을 맞아 승리한 장성 황룡전투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황룡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그렇지요. 황룡전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1894년 정월 동학농민군은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4월 무장기포, 5월초 백산대회 등을 거쳐 전라도 수부였던 전주성, 그러니까 전라감영을 점령하려고 진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은 전라감영군을 중심으로 보수상과 향병 등을 모집하여 동학농민군 토벌을 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군과 전라감영군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정읍의 황토현 전투이지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전라감영군을 물리친 동학농민군은 비어 있는 전라감영, 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부대를 바로 전주방향으로 진격시킵니다. 동학농민군이 태인을 지나 원평에 이를 즈음에



서울에서 조선의 최정예부대 경군(京軍)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내려온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부대를 되돌려 정읍, 부안, 흥덕, 고창, 무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영광, 함평 등지에서 농민군 세력을 늘리면서 장성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다가 동학농민군은 이곳 장성 황룡 월평에서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94년 5월 동학농민혁명 황룡전투이지요.

Q

네, 맞습니다. 동학농민군이 황룡전투를 앞두고 경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을 망설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전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과 전투를 벌일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곳 황룡전투에서는 농민군의 심리적 부담감이 한층 더했을 것입니다. 임금이 파견한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곧 반란으로 인식될 사안이니 부담백

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전에 나서 결국 경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황룡전투가 갖는 의미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세기 동안 황룡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장성 황룡전투 뿐만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일제강점기와 굴곡 심했던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곧 전라도 고부 탐관오리 조병갑을 몰아내기 위한 지역적 사건쯤으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탓이지요. 실제로 1970년대까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의 조병갑 사건 정도로 기록되어 가르쳐왔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와 전두환 정권 때 전북 정읍에 기념사업이 편중되다보니 대중적인 역사인식 또한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전라도 고부, 정읍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던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근대 민주주의운동이라는 측면과 특히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군과 대항해서 싸운 민족적 의미를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사학자나 식민사학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을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가렴주구에 대항해 일어난 고부농민들의 항거라던가 동학이라는 사교집단의 난으로 왜곡하고 축소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도 저조했고, 당연히 황룡전투에 관심도 일천했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네, 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세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된 동서냉전체제 구축기에 극심한 민족내부의 좌우대립, 한국전쟁 등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그 이후 자주성이 떨어진 정부와 군사정권의 집권이 이어지면서 1970년대까지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세기가 넘도록 반란사건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민란으로 치부되어오던 동학농민혁명이 이상식 교수님이나 회장님과 같은 뜻있는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실상부하게 그 명예를 회복하는 복권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A

매년 5월 27일(양력)이 동학농민혁명 황룡전승일입니다. 이날을 기해서 우리 장성 기념사업회는 매년 황룡전적지 내 황룡전승기념탑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동학농민혁명군 황룡전승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장성군은 물론이고 장성문화원, 장성농업인연합회 등이 힘을 모아 한마음을 한뜻으로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승행사 풍물길놀이를 시

작해서 전승기념식을 갖고, 황룡전투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으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는 지역축제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장차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매년 행사를 펼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장성군만 하더라도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인데, 우리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청소년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가까운 곳의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인근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전승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진펄로 버려져 있던 이곳 전적지를 정비하고, 기념탑을 세우고 국가사적으로 등재시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황룡전투의 승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념관이나 자료관 그런 것이 없어서 그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념관이나 자료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생각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꼭 110년만인 지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5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꼭 125년 만인 지난 2019년 2월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이제는 달력에도 5월 11일 칸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라고 새겨져 나옵니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장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남다르지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쁩니다. 기념일이 제정되던 첫 해에는 그러니까 2019년 5월 11일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125년 만에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지요. 그때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히나 기념식에 참석하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하신 기념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최초 민주주의 운동이고, 우리나라 최초 근대민족주의운동이며, 우리나라 근대 최초 반부패개혁운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 저뿐이었겠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그간 모진 어려움 속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임원진과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억울하게 반란군의 후손으로 낙인찍힌 채 살아온 후손들도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매일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1일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하여 정읍 황토현전전지에서 개최한 기념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갑오년의 선열님께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군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기념식을 추진되니 후손으로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장성과 가까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때는 지 지난 해와 지난 해 두 번 다 참석하지 않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지요?

A 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자연풍광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확연하게 바뀌었을 때 사용되는 사자성어인데,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다가 110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혁명으로 복권되고,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두고 상전벽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125년, 한 세기 하고도 다시 사반세기가 지난 뒤에서야 명실상부하게 명예가 회복되고 복권이 되었잖아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인식을 추구하여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기념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해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사적 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과 예산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과 회원 모두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가겠다는 뜻을 함께 전합니다.

Q 네, 회장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북 예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경상도 북서부(예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1)

예천지역에서 동학세력의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최맹순(崔孟淳)이 1894년 3월 소야(蘇野)에 접소(接所)를 설치하고, 관동수접주(關東首接主)가 되어 활동을 시작한 때로 볼 수 있다. 활동범위가 3도(경상·충청·강원)에 걸쳐있었던 최맹순은 1894년 6~7월 사이 날마다 수천 명의 교도가 입교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 활동이 대단하였다. 실제로 그는 48개집 7만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천지역에서 농민군 활동의 표면화는 1894년 7월부터인데, 이는 호남에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점령하고,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상도 지역에서도 반부패 활동이 크게 고무된 것과 관련이 깊다. 또한 1894년 5월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이 청나라와 전쟁을 치루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구간에 병참부를 설치하고 전선을 가설하면서 경상도 북서부지역 농민들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반일감정이 고조된 것과도 관련이 깊다.

실제로 일본군은 청나라와 전쟁을 결정한大本營의 지시에 따라 1894년 6월 21일(음력)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후 서해(西海) 풍도에 정박 중이던 청나라의 북양함대를 공격하는 한편 부산 동래에서 서울에 이르는 요충지에 병참부 설치와 전선(電線) 가설에 박차를 가했다. 하여 1894년 7월에는 부산 동래를 비롯하여 구포, 삼랑진, 물금포, 밀양, 청도, 대구, 다부역, 낙동, 해평, 태봉, 문경 등에 일본군 병참부가 설치되었다.

예천관아 객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1

예천관아와 객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민보군의 보수집강소로 사용되었다. 객사(건평 3,97㎡)는 원래 예천읍 서본리 현 예천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것을 1922년에 설립한 대창학원의 원장 김석희(金碩熙)가 1927년 3월 현재의 장소로 이설(移設)하였다. 현재 대창중·고등학교 교장실과 행정실, 인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천 객사(전경)



예천 객사(건물 뒤편)

예천 금당실 마을과 송림(松林)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668-1, 665-1, 640, 622-1, 620-1, 545-1

예천 금당실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이며, 송림(松林)은 농민군과 관군 및 민보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전투지이다. 이곳 송림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예천 금당실 마을 입구 표지석



예천 금당실 마을 전경

경상도 북서부(예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2)

전라도에서 지방권력을 장악한 상태로 강력하게 폐정개혁을 단행한 것과 달리 경상도 지역에서는 읍치 외곽의 농민군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경상도 북서부지역은 읍을 중심으로 이서배와 양반지주층이 보수집강소를 중심으로 반농민군을 조직하고 강력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4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경상도 북서부지역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자 대구에 소재한 경상감영에서 관군을 파견 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이 지역의 이서배·양반지주층으로 구성된 보수집강소의 민보군과 정부에서 임명한 소모사(召募使)가 모집한 소모영군 등이 반농민군 활동의 중심이었다.

전라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1894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농민군 활동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나 보수양반층과 보수적 향촌질서가 강한데다 북접의 영향을 받은 농민군이 읍치 대한 공격을 유보함에 따라 전라도 지역에서처럼 강력한 개혁활동이 펼쳐지지는 못하였다.

이렇듯 이 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의 민보군 어느 한 쪽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10일 새벽 예천 보수집강소의 민보군이 예천읍 동쪽으로 50리가량 떨어진 안동과 김천까지 쳐들어가 농민군 11명을 체포한 후 예천읍으로 돌아와 내성천변 모래밭에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9월 초순 성주(星州)에서 개혁활동을 벌이던 동학농민군이 수성군의 공격을 받아 18명이 살해되었다. 그러자 9월 4일경 경상도 북서부지역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성주읍을 공격하였고, 이때 이서배의 집과 민가 1,000여 호를 불태운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1894년 9월 18일 동학 교단에서 전국 대동원령이 내려진 후 상주(尙州)·김산(金山)·선산(善山)·개령(開寧) 등에서 동학농민군도 관군·민보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예천 금당실 함양박씨 유계소(儒契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33, 334

함양박씨 유계소(儒契所)는 예천의 양반 문중인 함양박씨의 유생이 모여 문중의 일을 논의하거나 경전을 강론하던 곳이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이 건물을 빼앗아 도소를 설치하고 ‘금곡포덕소(金谷布德所)’라 불렀다. 건물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불타버렸으나 이후 함양박씨 문중에서 복원되어 ‘경담재(鏡潭齋)’라는 현판을 걸었다.



예천 함양박씨 유계소(경담재 입구)



예천 함양박씨 유계소(경담재 전경)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9

1894년 8월 10일 새벽 예천읍 동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안동과 김천까지 쳐들어간 예천 보수집강소의 민보군이 동학농민군 11명을 체포한 후 예천으로 돌아와 생포한 농민군 열한 명을 모래밭에 생매장하였다. 이런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경상도 예천의 유학(儒學) 반재원(潘在元)이 예천군에 집강소를 마련하고 해체하기까지 그 활동상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보수집강소 민보군에 의해 농민군이 생매장된 장소가 공설운동장 뒤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확한 장소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1999년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예천공설운동장 앞 천변에 '동학농민군생매장터'라는 비를 세웠다.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비석(碑石) 앞면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비석(碑石) 뒷면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비석(碑石) 측면



비석(碑石) 뒷면 측면

예천 한천제방과 서장자들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83, 85-2, 86-1 일대(서장자들) /
14, 70-11 일대(현산) / 103, 104 일대(유정)

한천제방과 서장자들은 1894년 8월 28일 밤 예천지역(화지)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의 민보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갑오척사록」에 “부병(예천 민보군)들이 서정(西亭)의 긴 제방을 에워싸고 양면에서 협공을 하였다.”고 전투상황을 전하고 있다. 예천읍내 공격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예천읍 서쪽 화지의 농민군이였다. 농민군의 예천공격에 대비하여 한천제방 위에 진을 치고 있던 보수집강소의 민보군들이 서정(西亭)의 긴 제방을 에워싸고 양면에서 농민군을 협공하였다. 전투상황은 “총탄이 떨어지는 숲속에서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어지럽게 땅으로 떨어졌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 차서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때 민보군 측의 사주를 받은 유적 남쪽의 청북동 주민들이 산 위에 횃불을 설치, 군대가 있는 것으로 위장한 채 큰소리로 “안동의 구원병 3천여 명이 왔다. 너희 적도들이 어디로 달아나겠는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당황한 농민군이 예천 동남쪽 서장자들로 퇴각하였고, 민보군이 그 뒤를 추격하여 수많은 농민군이 오지(汚池)에 빠져죽거나 민보군의 창검에 희생되었다.



예천 한천제방과 서장자들



예천과 현산

1894년 6, 7월 도소가 설치된 예천지역 동학농민군은 8월로 접어들면서 조직이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 예천에서 활동한 농민군 지도자로는 금당실에 들어와 도소를 설치한 접주 권경함(權景咸)과 그가 함양박씨 유계소(儒契所) 건물을 빼앗아 ‘금곡포덕소’를 세우고 그곳의 접주로 삼은 권순문(權順文)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중심적인 활동을 한 인물로 거론되는데 사람이 전기항(金基恒)이다. 전기항은 농민군의 “모량도감(募糧都監)”이라는 직책으로 금곡의 농민군은 물론이고 경상도 북부 일대 농민군의 군량을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항의 고손자(高孫子) 전장홍 씨는 “고조부님 풍채가 워낙에 좋아 돼지의 한문 표기 ‘전 도야지(刀也只)’로 불렸다고 한다.”는 것과 “고조부님은 천석꾼으로 불릴 정도로 부농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비 마련을 위해 재산을 다 끌어다 쓴 바람에 동학농민혁명 이후 집안에 무쇠술 하나 밖에 남지 남았다.”고 집안에서 전해져오는 얘기를 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전기항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1996년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전기항의 묘소 앞에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전기항의 사추모비’를 세웠다.



동학농민군지도자 전기항의사 추모비



동학농민군지도자 전기항의사 묘소

예천읍을 둘러싼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민보군의 공방전

1894년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예천읍 외곽지역 곳곳에 동학농민군 도소가 설치되었고, 곳곳에서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악덕 지주나 토호를 벌하는 등 폐정을 개혁해나갔다. 또한 농민군 자체적으로 검찰관(檢察官) 혹은 안렴사를 두어 예천, 풍기 등 각 지역을 순회하며 폐정개혁 활동을 조정하거나 감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1894년 7월 5일(음력) 농민군 수십 명이 예천읍으로 들어가서 전 영장(前 營將) 이유태(李裕泰)를 끌어내서 결박·구타하고 돈을 탈취하였다. 같은 달 7일에는 읍리(邑吏) 황준대(黃俊大)의 동생집 무덤을 파헤쳤으며, 9일에는 읍의 벼슬아치 김병운(金炳運)을 끌어내 구타하고 그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 또한 15일에는 우음동(于音洞) 접주 박래헌(朴來憲)이 수십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진가점(京津街店)에서 안동부사 일행을 공격하고 행장을 빼앗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이처럼 동학농민군 활동이 활발해지자 7월 24일 예천읍의 관리들은 객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논의 이튿날인 25일 예천군수가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군의 창고에 있는 무기로 부민(部民)들을 무장시켰으며, 26일에는 집강(執綱)·총독(總督)·도감(都監) 등 70여 명의 간부를 정하고 객사에서 보수집강소 업무를 시작하였다. 보수집강소는 8월 초 예천읍과 읍 밖에서 1천 5백여 명의 민보군을 모집하여 무장을 완료하였다. 이에 농민군은 8월 2일 사방의 통로를 막아 예천읍을 봉쇄하면서 보수집강소를 압박하였다. 그러던 8월 10일 새벽 예천의 민보군이 농민군 11명을 체포하여 모래밭에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분노한 농민군은 예천읍 봉쇄를 강화하면서 보수집강소 측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였다. 긴박한 대치국면이 이어지던 8월 20일경 농민군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강원도의 각 접소에 예천 공격을 위해 집결하라고 연락하였다. 이렇게 하여 상북·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 등 13명의 접주들이 상주 산양(山陽)과 예천의 금곡과 화지(花枝) 등지에 모여 대회를 열었다. 이어서 농민군은 북쪽의 금곡·은풍(殷豐)·송정(松亭)을 막고, 동쪽의 도평(島坪)·감천(甘泉)·석관(石串)을 차단한 채 남쪽의 직곡(稷谷, 피실)과 서쪽의 화지 등을 장악하고 예천읍을 포위하고 보

수집강소 측에 농민군을 생매장한 책임자를 압송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이런 움직임에 파악한 예천의 보수집강소는 21일 안동부도총소(安東府都摠所)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23일에는 보수집강소의 민병 300여 명을 앞세워 화지의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윤치문(尹致文)이 이끄는 예천의 농민군과 안동과 의성이 합세한 농민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보수집강소의 민보군이 화지의 농민군을 공격했다가 물러났다는 소식을 접한 관동대접주 최맹순은 8월 24일 예천을 공격하기 위하여 휘하 각 접에 사통을 보냈고, 이튿날인 25일 농민군 수천 명이 용궁면을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등 예천읍내 보수집강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8월 27~28일 상황이 역전되었다. 농민군이 예천을 공격할 것을 대비하여 보수집강소에서는 8월 27일 총수(銃手) 100여 명을 징발하여 현산(峴山) 옆 골짜기에 잠복시켰다. 이어 28일 오후 농민군 1만여 명이 한천 남쪽의 유정(柳汀)으로 들어가 진지를 구축하였다가 밤이 되자 공격을 시작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농민군이 크게 패하였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8월 29일 안동에서 구원병 3,500여 명이 예천으로 들어와 보수집강소에 합류하였고, 통역·화병(火兵) 10명 등을 대동한 일본군 53명도 예천으로 들어와 합류하였다. 이후 일본군과 보수집강소의 민보군 연합부대의 공격에 농민군은 상주와 충청도 단양과 제천 등지로 밀려났다.

| 참고자료 |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9) - 『소모사실』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 - 『갑오척사록』, 『토비대략』, 『소모일기』

『다시 피는 녹두꽃 - 동학농민군후손증언록』,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5주년 기념행사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는 지난 1월 1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제한한 이날 행사는 헌수, 봉정, 헌주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시상식을 갖지 못했던 2020년도 제13회 녹두대상 수상자(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에 대한 시상식을 병행하였다.

진윤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봉준 장군의 고향 고창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창군민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동상 건립사업을 계기로 삼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극심하게 왜곡·축소된 혁명의 위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1월 12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봉준장군 탄생 165주년 기념행사
1월 20일	뉴스웨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본격 추진
1월 26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와 대둔산항쟁 재조명
1월 27일	전라일보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7개소 설치
1월 28일	새전북신문	고창 무장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에 성금
2월 02일	충청일보	변혁운동의 중심지였던 태안을 조명
2월 02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작된 완주 삼례...위상 걸맞는 제대로 된 평가 필요
2월 21일	새전북신문	고창 전봉준 생가터 '전북도 지정 문화재'된다
2월 25일	동양일보	임귀현 완주군의원 "동학농민혁명 의의 계승, 발전시켜야"
2월 26일	통일뉴스	동학농민혁명은 아직도 역사의 금기인가?
3월 02일	연합뉴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담은 UCC 공모...상금 최고500만원
3월 02일	새전북신문	정읍 고부면, 동학농민혁명 불꽃을 다시 피울 채화 행사 가져
3월 02일	뉴시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책자로 발간
3월 04일	전북일보	[신간]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3월 04일	뉴스핍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위한 용역 착수
3월 08일	한겨레	말 타고 장흥 석대들 전투 지휘...동학혁명 여성 선봉장 이소사
3월 12일	한겨레	"내 마지막 책은 자네가 내주게"
3월 15일	전북일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4월 9일까지 접수
3월 16일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물과 자료 공개 구매
3월 18일	경기일보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역사학자 이이화선생 1주기 추모
3월 18일	대전일보	천안,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재조명

2021년 동학농민혁명 교육·체험 프로그램 홍보

| 2021년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참여대상/인원
생생 문화재	녹두장군과 함께 하는 1박 2일	4회 (4~6월)	전북일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관	가족, 일반 (회차당 36명 이내)
	파랑새를 찾아서	4회 (8~11월)	전북일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관	전국 다문화 가정 및 어린이 (회차당 36명 이내)
	1894, 인스타 로드	4회 (9~11월)	전북일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관	전국 대학생 (회차당 36명 이내)
	꿈을 품은 박물관	4회 (9, 10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국 중학생 (회차당 36명 이내)

| 2021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안내 |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참여대상/인원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는 하늘이다	3월~12월 (각 5회씩 15회)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초등학교 저학년 (회당 30명)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교육관, 상설전시실	초등 고학년~고등학생 (회당 30명)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전국 초등학교 교실/ 강당	초등 3~6학년 (회당 30명)
교육청 답사	전북 교육청 연계 답사	5~11월	전북 동학농민혁명 답사지	학교별 25명
교원 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교원직무연수	7월 22일 ~23일	정읍, 고창 지역 답사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교 육관	전국 교원 (30명)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 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 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 수 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8-289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재 단